

16. 聖人之行不同也 或遠或近 或去或不去 歸()其身而已矣. 吾聞其以()之道要湯 未聞以()也.

17. 彌子之妻與子路之妻 兄弟也.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 衛卿可得也 子路以告 孔子曰 有() 孔子進以() 退以() 得之不得曰 有()

18. 子以爲有王者作 將㉠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教之不改而後誅之乎 에서 ㉠比의 의미에 알맞은 것은? ()

- ① 等 ② 肩 ③ 並 ④ 從 ⑤ 連

[19~20] 다음 문장을 해석하십시오

19. 孔子悅於魯衛 遭宋桓司馬將要而殺之 微服而過宋. 是時孔子當阬 主司城貞子 爲陳侯周臣.

20.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.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.

수고하셨습니다

[해 답]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天, 天, 命 | 2. 禪 |
| 3. 舜禹, 仲尼 | 4. 伯夷, 橫政, 橫民 |
| 5. 柳下惠, 賢 | 6. 孔子 |
| 7. 伊尹 | 8. 長, 貴, 兄弟, 德 |
| 9. 貴貴, 尊賢, 貴貴, 尊賢 | 10. 道, 禮 |
| 11. 比, 敎, 盜 | 12. 淸, 任, 和, 時 |
| 13. 智, 聖, 智, 聖 | 14. 夏, 殷 |
| 15. 癰疽, 疔環 | 16. 潔, 堯舜, 割烹 |
| 17. 命, 禮, 義, 命 | 18. ⑤ |

19. 공자께서 노나라, 위나라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가는 길에 송나라의 환사마(상퇴)가 장차 길목을 지켜 죽이려하는 액을 만나셨을 때 미복을 입고 송을 지나셨는데, 이때 공자가 액을 당하심에 후일 진후 주의 신하가 된 사성정자를 주인삼았었다.(사성정자 집에 묵다)

20. 공자에게는 행해질만한 것을 본 후에 하는 벼슬과 교제할만하여 하는 벼슬과 공양받는 벼슬이 있으셨다. 계환자에게서는 행해질만한 것을 본 후에 하신 벼슬이고, 위령공에게서는 교제할만하여 한 벼슬이고, 위효공에게서는 공양받는 벼슬이셨다.